

“광주시 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임원 낙하산”

김점기 시의원 “산하기관 직원 승진기회 박탈 상실감 유발” “5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심각 구간 경계조정 필요”

광주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5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2·사진) 의원은 16일 시정 질문을 통해 “퇴직 고위 공직자 임명은 산하기관 직원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상대적인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광주시 4급 퇴직자의 산하기관 취업 현황을 보면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으로, 전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이 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전 종합건설본부장은 남도

장학회 사무처장, 전 복지건강국장은 교통문화연구소장, 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은 광주시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인사적 체 해소,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퇴직 공무원이 임명된 상당수 기관장 자리는 내부 직원이 승진을 통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를 우대·채용한 관행을 지양하고 외부



또 김 의원은 “광주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심각해 구간 경계 조정 필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인구 현황성은 광주가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전체 인구 중 30%를 차지한 북구와 6.5%에 불과한 동구와의 편차를 말한다. 대구는 22.7%, 대전 19.7%, 울산 17.4%, 인천 16.8%, 부산 11.3% 순이다.

2010~2017년 동구는 6만1590명이 전입하고 7만7873명이 전출, 들어온 시민보다 나간 사람이 1만6283명이나 많았다. 반면 광산구는 15만1099명이 전입한 반면

11만7075명이 전출해 전입이 전출보다 3만4024명이나 많았다.

북구는 전입 15만6273명, 전출 16만6991명, 서구는 전입 13만4026명, 전출 14만9226명으로 전출이 각각 1만718명, 1만5200명 많았다. 남구는 전입 10만7천58명, 전출 9만8970명으로 전입이 8088명 많아 광산구와 함께 유일하게 전입 비율이 더 높았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년간(2013~2018.8)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4급 이상 인사 교류자는 5명이었다. 이 기간 전국 광역단체와 중앙부처 간 4급 이상 인사 교류자는 총 119명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시 우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산유원지에 질라인·모노레일?

개발사업자 사업계획 제출...환경단체 반발 예상

박미정 시의원 시정질의

광주 자산유원지 개발사업자가 최근 인가를 모으고 있는 ‘질라인’과 ‘모노레일’을 유원지에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산유원지 사업시행자가 모노레일, 질라인 등 세부시설 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자산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호텔, 골프연습장, 모노레일, 유희시설, 각종 상가 등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돼 왔다. 현재 리프트카, 모노레일 등만 운영 중이다.

그나마 지난해 7월 면적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23년

만에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유원지 시설로 묶여 있는 전체 93만여㎡ 중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11만㎡를 제외하고 82만9000㎡로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3월 2003년 호텔, 유원지 부지 등을 인수한 나경인터내셔널(나경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나경개발 측은 호텔과 컨벤션센터 이외에 직업체협관, 수영장, 질라인 등을 갖춘 복합유원지로 조성하는사업계획서를 냈다. 현재 시는 이 사업안에 대한 검토·심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미정 의원은 “유원지 기능이 약화된 자산유원지를 관광명소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유원지로 다시 재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 토지 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며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0년부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도 천년’ 기념식

내일 전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전주 전라감영 일원에서 열린다. 기념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사·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3개 사·도는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전라도 천년 기념일을 2018년 10월 18일로 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 1월 1일 광주에서 천년맞이 타종식을 연데 이어 4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또 ‘전라도 천년사 편찬’ 등 공동협력사업과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도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라도 최고 지방통치 행정기구이자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총본부였던 대도소가 설치됐던 전라감영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17일 오후 7시 20분 호남제일성으로 불리는 풍남문 앞 특설무대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며 행사 분위기를 띄우고, 18일 기념식 순으로 펼쳐진다.

전야제에서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지역 대학생들의 사물놀이, 버스킹 공연, 천년의 역사 이야기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의 방향에 대해 역사학자 최태성이 들려주는 미래천년 토크콘서트 등이 선보여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및 제212차 시·도대표 회의가 16일 오전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준성 영광군수, 시·도대표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 취임식과 제 212차 시·도대표대회가 16일 영광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재 전남도회의장,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시군의회의장회 의원과 영광군 의원들이 참석했다.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27명을 대표하는 의장협의회 대표로서 막중한 소임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방4대 협

의회 및 15개 시·도대표회장과 협력,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제212차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지역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인권도시포럼’ DJ센터서 내일 개막

‘우리는 누구와 살고...’ 주제

광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인권포럼에는 발제 및 토론자로 국내외 인권전문가 183명이 참여하며 해외에서 사전 참가 신청한 211명을 포함해 포럼 전체 참가자는 44개국 45개 도시 1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참가자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진성 세계인권도시포럼추진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미연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당선자 ▲서창록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등이다.

또 해외 참가자는 ▲케이트 길모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모르텐 사예스 스웨덴 라울발렌 베리인권연구소장 ▲칼리 자이 UN 인종차별철폐위원 ▲카오루 오바타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오비오라 오카포 전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 ▲아

이다 길리엔 바르셀로나 인권국장 등이다.

인권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라울발렌베리연구소(RWI),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UCLG-CISDP), 아시아발전연대(ADA),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UN 인권이사회(HRC) 자문위원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갖는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증진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 관계자 15명이 인권포럼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안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칼리 자이 UN 인종차별철폐위원, 카오루 오바타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오비오라 오카포 전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 ‘주제회의’는 여성, 노인, 어린이·청소년, 이주민·난민, 장애, 환경, 사회적 경제, 평화, 국가폭력 등 9개 주제별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회의를 운영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옛, 밝은광주인과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